

# 균형있는 가정생활

Does the Bible Contradict Itself  
About the Family?



한국 오늘의 양식사

신앙 성장 시리즈 5

# 균형있는 가정생활

Does the Bible Contradict Itself  
about the Family?

한국 오늘의 양식사



# 차례

|                                   |    |
|-----------------------------------|----|
| 발행인의 글 / 김상복 목사.....              | 4  |
| 성경은 우리 기정에 상반되는<br>말씀을 주시는가?..... | 6  |
| 1. 자식의 장래, 무엇이 결정하는가?.....        | 9  |
| 2. 맞벌이에 대하여.....                  | 14 |
| 3. 이혼에 대하여.....                   | 18 |
| 4. 재혼에 대하여.....                   | 23 |
| 5. 영적 생활과 결혼.....                 | 28 |
| 6. 부부의 섬김.....                    | 33 |
| 7. 가족, 얼마나 사랑해야 하나?.....          | 37 |
| 8. 다정한 부모와 엄격한 부모.....            | 41 |
| 9. 자식, 축복인가 저주인가?.....            | 46 |
| 10. 부모의 죄와 자식의 고통.....            | 51 |
| 11. 효도, 분가 후에는?.....              | 55 |
| 12. 부양의 의무.....                   | 59 |



## 조화와 균형이 있는 가정 생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특징 중의 하나는 균형있는 삶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중요한 직분을 받았고 성경을 많이 알며 기도를 잘 해도,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사회에서 유명하더라도 그 사람의 삶에 균형이 없다면 성숙한 사람은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 신앙인들에게 너무나 결핍된 현상입니다.

현재와 21세기를 맞이하는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균형있는 신앙과 생활입니다. 그 동안 한국 교회는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져 이쪽과 저쪽, 이 운동과 저 운동 사이에서 반복과 갈등을 느껴왔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분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온전한 조화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가정 생활에서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가정 안과 밖의 생활의 책임과 의무 등에 있어서 조화와 균형의 원리를 보여 주십니다.

균형있는 가정 생활을 세워 줄 수 있는 또 한편의 소  
책자를 출판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오늘의 양식사」  
담당자들에게 깊은 고마움을 느끼며 감사드립니다. 부디  
여러분의 가정에 균형있는 성장과 성숙을 기원합니다.

김 상 복 목사

## 성경은 우리 가정에 상반되는 말씀을 주시는가?

성경에는 서로 반대되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 말씀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가령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였다가 다른 곳에 보면 슬퍼하라고 합니다. 또 나아가 싸우라고 하다가 온유하라고도 합니다. 서로 의지하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스스로 독립하라고 합니다. 해를 끼치지 말라고 하다가 투쟁하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분적으로 그 이유는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항상 변하는 환경과 필요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응하도록 무장시킨다는 데에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4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썼습니다.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혈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솔로몬은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했습니다(전도서 3:11). 다시 말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혈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며,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며, 치료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라고 말씀하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때와 방법을 정확히 가려서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이 소책자에서 RBC(라디오 성경교실)의 편집장인 허브룩트 목사님께서서는 가정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보다 폭넓게 해 주시기 위해서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서로 상반되는 개념들을 친절하게 풀이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자를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하나님의 뜻(사도행전 20:27)”에 따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리를 좀 더 깊이있게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드리며 이 책자를 드립니다.



## 자식의 장래, 무엇이 결정하는가?

### 부모가 만드는 것이다/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언 22:6)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법과 의를 따라 행하며 ... 억탈하지 아니(하여도) ...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에스겔 18:5-10)

어느 나이 많은 아버지가 자식의 영적인 문제를 놓고 죄책감 때문에 괴로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다섯 자녀를 키웠는데 그 가운데 넷은 모두 부모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부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가운데 하나는 경제적으로는 성공을 하였으나 부모가 가르친 것을 전적으로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아버지는 잠언 22장 6절과 같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신이 무엇인가를 잘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같은 괴로움을 겪으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으며 남편에게도 아들의 방탕한 생활로 인하여 스스로를 탓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확신시키려고 애썼습니다. 그녀는 에스겔 18장의 말씀처럼 아들이 부모의 가르침이나 모범을 때로는 좋은 의도에서 어떤 때는 나쁜 의도로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명백히 묘사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의 장래는 부모가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어머니는 “자식의 장래는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 자식의 장래는 부모가 만드는 것이다.

1. 자식에게 주의 법도를 가르치면 장성하여도 주의 법도에 따라 행하게 됩니다. (잠언 22:6)
2. 자식을 바르게 훈육하면 자기 중심적인 타고난 성품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잠언 22:15)

3. 사랑의 채찍과 꾸지람을 받은 자식은 영적 지혜를 얻게 되나 제멋대로 내버려둔 자식은 부끄러운 열매를 얻게 됩니다. (잠언 29:15)

4. 바르게 자란 자식은 부모에게 영화를 안겨 줍니다. (잠언 17:6)

### ☒ **자식의 장래는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1. 가정 환경이 어떠한든 상관없이 자식은 스스로 선택하여 정직하고 부지런할 수도 있고, 부정직하고 게으를 수도 있습니다. (잠언 10:4, 5)

2. 가정 교육이 어떠한든 상관없이 자식은 스스로 선택하여 지혜를 사랑할 수도 있고, 악한 자를 사귄 수도 있습니다. (잠언 29:3)

3. 부모가 보여 준 경건한 삶을 따르지 않고 거역하는 자식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요, 부모가 보여 준 최악의 길에서 돌아서는 자식은 하나님의 상급을 받습니다. (에스겔 18:2-18)

### □ **해설**

잠언 22장 6절과 에스겔 18장의 말씀은 상반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사실은 서로 보완하고 균형을 맞추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은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주의 법도 안에서 키운 자식은 그가 배운 것이 마음 속에 지워질 수 없도록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빗나갈 수가 없다는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18장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가 한 행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자식과 부모된 사람 모두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할 수 있으나 자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 □결론

원칙적으로 올바른 가르침을 받고 경건의 모범을 보면서 자라난 자녀는 바른 길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예외도 있습니다.

## □적용

- 경건한 부모는 자녀들에게 주님의 법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이유를 가르치고 권면하는 데 힘 쓰십시오.
- 부모는 경건한 삶이 대를 물려가듯이 상속되는 것이 아니요 각자가 선택할 일이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 그릇된 길로 빠진 자녀를 가진 경건한 부모는 사람이

각자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잘못된 자책감을 떨쳐 버리십시오.

## 2

## 맞벌이에 대하여

**여성은 결혼 후 가사만 돌봐야 한다/직장을 가져야 한다**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 집 안일을 하게 하라”(딤후 3:4-5)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  
 (디모데전서 5:14)

“그는 밭을 간판하여 사며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 그는 베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고에게 맡기며”(잠언 31:16, 24)

세 아이의 어머니인 한 여성은 결혼하기 전에 대형 의류 판매점에서 한 부서의 책임자로 일했습니다. 지금은 두 아이가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아이 봐주는 사람을 집에 두고 자신은 다시 직장에 나갈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수입은 가족을 위해 사용하자는 것

입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가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직장을 가진 주부가 과중한 스트레스 때문에 집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기다렸다가 맞아 주는 어머니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수입이 부족하여 할 일을 못하는 한이 있어도 자기의 아내만큼은 집안일에만 열중할 것을 바랍니다. 그러나 아내는 직장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하고 과외 수입을 올리는 것도 원하기 때문에 다시 직장에 나갈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크리스천 어머니로서 어머니의 역할과 직장인의 역할을 동시에 감당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해설

젊은 여성들이 크리스천의 삶을 사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쓴 편지를 통하여 교회의 나이든 여성들은 젊은 여성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온유하며 집안일을 부지런히 하며 남편을 존경하게 하라고 일렀습니다(디도서 2:4,5). 바울이 이러한 당부를 하게 된 이유는 젊은 여성들이 남자들과 영적으로 동등한 지위에까

지 오르게 되는 경우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을 소홀히 여기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와 비슷한 말을 하였는데 젊은 과부는 부질없이 소문이나 일을 만들지 말고 재혼하여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는 일을 생각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5:14)

잠언 31장 10-31절에는 아내와 어머니로서 집안 일을 열심히 하였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11-15, 21, 22, 27절). 그러나 이 여인은 또한 시간을 내어 받을 사서 포도원을 가꾸고(16절), 이웃의 가난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며(20절), 옷을 지어 팔았습니다.(24절) 그리하여 이 여인은 자식들과 남편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28, 29절)

## □ 결론

결혼한 여자의 첫번째 책임은 남편과 아이들을 위하여 가정을 이루고 살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밖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돕거나, 집안을 위해 과외 수입을 버는 것도 가능합니다.

## □ 적용

- 아내의 첫번째 책임은 집안과 아이를 돌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직업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여성은

독신으로 사는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 결혼을 하는 여성은 하나님께서 아이 키우는 일에 부여하신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 결혼을 한 여인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주부의 역할을 하거나 밖에서 일을 하게 되거나 모든 것을 남편과 상의하여 결정하십시오.
- 경건한 어머니는 주님을 위하여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에 지극한 영광과 존엄성을 체험하여야 합니다.

### 3

## 이혼에 대하여

### 허락하시는 하나님/금하시는 하나님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마태복음 19:8)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린도전서 7:10-11)

기혼자인 B씨는 자기의 젊은 비서인 J양과 동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식 결혼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J양은 더 좋은 남자가 생기면 언제라도 자유롭게 B씨를 떠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B씨는 본처인 L씨와 이혼을 하려면 재산을 나누어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생활비만 부족하지 않게 대 주고 있습니다. 부인 L씨는 남편 B씨를 진심으로 사랑 하기 때문에 그만큼 마음의 상처가 클 수밖에 없습니 다. 그녀는 언제라도 남편이 돌아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인 L씨가 그 동안 상담해 온 카운슬러는 남편 B씨를 만나본 후 이 사람은 인간의 힘으로는 마음을 돌이킬 방법이 없다고 확신하였습니다.

부인 L씨는 아이들을 위하여 재산이라도 지켜야 하겠 다는 생각에서 이혼 소송을 시작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다는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그녀는 이혼을 금지하 는 성경 구절을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사님 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혼을 좋아하시 지 않지만 하나님은 또한 남편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 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으니 남편이 그 행동을 더 쉽게 하도록 만드 는 셈입니다. 나로서는 부인이 곧 이혼 소송을 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 ✧ 이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1. 예수님도 신명기 24장 1-4절에서 모세가 영감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혼을 허락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법은 두 사람이 이혼하여 다른 사람과 살다가 헤어져서 이들 두 사람이 다시 결혼하는 것만을 금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8)

2.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영적 음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신 후에 이스라엘에게 이혼 증서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혼의 가능성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3:8)

3.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명하여 그들이 결혼한 이방 여인과 이혼하고 멀리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에스라 10:11)

4. 예수님은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9)

5. 바울은 믿지 않는 배우자를 가진 그리스도인에게 말하기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7:15)

## ✧ 이혼을 금하시는 하나님

1.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은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것은 그 여인을 크게 학대하는 것이므로 이혼을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2: 16)

2. 예수님도 하나님이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 결혼하도록 지으신 것과 이렇게 한 몸이 된 부부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 3-6)

3.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아내와 남편은 서로 이혼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7: 10, 11)

4. 바울은 또 믿지 않는 배우자를 가진 그리스도인에게도 이혼을 하지 말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7: 12, 14)

## □해설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혼과 재혼에 관한 법을 만들었음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도 경우에 따라 이혼을 허락하심을 가르친 것입니다.

바울도 그리스도인은 결혼 생활을 지키기 위하여 힘써 노력하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바울은 한 걸음 나아가 믿지 않는 배우자를 가진 그리스도인은 마태복음 19장 4, 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토록 한몸을 이루어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한 쪽 배우자가 간음을 행한 때나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고 나설 때는 이혼을 허락하십니다. (고린도 전서 7장 15절에서 “갈리다”로 번역된 단어는 원래 chorizo라는 말

로서 이혼을 지칭하는 법률적 용어로만 사용되었음)

## □결론

하나님은 결혼을 평생토록 한몸으로 연합하는 것으로 계획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혼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보십니다.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은 배우자가 음행을 하거나 그리스도인의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고 나서는 경우에는 이혼을 허락하십니다.

## □적용

- 우리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하나님 뜻에 일치하는 결혼 생활을 가꾸어 나가야만 합니다.
- 문제가 생긴 결혼 관계는 복구하려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크리스천 상담자의 도움을 구해야만 합니다.
- 음행으로 인해 가정 파탄을 겪거나 심지어 이혼을 한 경우에라도 우리는 언제나 상대를 용서할 준비와 가정을 다시 복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이혼이란 배우자가 음행하였고 이로 인한 화해가 완전히 불가능할 때에 쓸 수 있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 4

## 재혼에 대하여

## 금하시는 하나님/허락하시는 하나님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리운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누가복음 16:18)

“아내에게서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고린도전서 7:27-28)

K부인은 아직 나이 어린 아이 셋을 데리고 이혼하였습니다. 그의 남편은 불륜 관계에 있던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K부인과 이혼을 했습니다.

K부인은 요즘 교회의 독신자반에서 알게 된 한 남자와 사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K부인과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것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며 훌륭한 직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K부인은 성경 말씀에 이혼한 사람은 그대로 독신으로 지내라고 명하신 것을 배워 왔기 때문에 재혼에 대하여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은 이 두 사람이 모두 결혼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 ☒ 재혼을 금하시는 하나님

1. 이혼을 한 사람이 다시 결혼하는 것은 간음을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6:18)

2. 이혼을 하고 나서 그 남편이 아직 살아있는 동안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여자는 음부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7:1-3)

3. 남편과 갈라진 여자는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7:10-11)

### ☒ 재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1. 원래 간음하는 자는 죽이라고 하였고(레위기 20:10), 홀로 된 남자와 여자는 재혼을 하여도 좋다고 하였습니다(고린도전서 7:39). 때가 이르러 하나님께서는 간

음한 자의 생명을 살리심으로 피해를 입은 배우자에게 재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2. 모세는 당시 성행했던 이혼 관행을 규제했을 때 이혼한 사람들도 다시 결혼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신명기 24:1-4)

3. 구약의 율법에 비추어 볼 때 적법한 이혼을 한 사람은 재혼을 할 수 있는 권리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음행이 이혼의 사유가 된다고 하신 말씀도 이렇게 이혼한 사람은 재혼을 하여도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9:1-9)

4. 사도 바울은 “아내에게서 놓인 사람”(사별하거나 이혼에 의해서)이 다시 장가 들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7:27, 28)

5. 바울은 또 믿지 않는 배우자를 가진 그리스도인에게 가르치기를 그 배우자가 스스로 이혼을 성립시킨 경우에는 그리스도인은 결혼 때문에 구속받을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7:15)

## □ 해 설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께서서는 이혼과 재혼을 모두 금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은 배우자가 음행을 한 경우에는 이를 예외로 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예외 사항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예외 조항을 빠뜨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6-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시대의 상황이 그러했기 때문에 혼자 사는 사람은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재혼을 하는 것이 죄 짓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 □결론

하나님은 배우자가 간음을 하였거나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고 나서서 이혼이 된 경우에는 그 상대는 재혼을 해도 좋다고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다른 사유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하나님은 재혼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 □적용

- 음행의 사유로 이혼이 성립된 경우 피해를 입은 쪽에서는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헤어진 상대방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심으로 회개를 한다면 이 사람과의 재결합에 대하여 마음을 열어 놓으십시오.
- 성격 차이와 같은 사유 때문에 이혼을 한 그리스도인 부부들은 혼자 사는 동안에도 헤어진 배우자와

재결합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 이혼 후 어느 한 쪽이 재혼을 했으면 남은 사람도 재혼을 하여도 좋습니다.
- 배우자가 간음을 하였거나 믿지 않는 배우자가 앞서 이혼을 하게 된 경우 그 상대방은 재혼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크리스천과 결혼을 하십시오.
- 이혼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대로 혼자 사는 길을 진지하게 생각해보십시오.



## 5

## 영적 생활과 결혼

## 결혼하는 것이 좋다/독신이 좋다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창 2:18)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잠언 18:22)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고린도전서 7:32, 33)

4세기에는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결혼을 하는 것보다 독신으로 사는 것이 높은 수준의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들은 교회를 섬기는 특별한 직분을 가지려면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더 이상적이라는 주장을 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서방 교회에서는

수도사, 사제, 수녀 들에게 독신 생활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동방 교회, 재침례교, 루터 및 칼빈 등은 결혼을 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 영적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믿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도 결혼을 권장했습니다. 어느 쪽 의견이 옳을까요?

### ✧ 결혼하는 것이 좋다

1. 남자와 여자는 각각 완전한 인간이기는 하지만 결혼을 하면 더욱 풍성하게 됩니다.(창세기 2:18-25)
2. 좋은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여겨야 합니다.(잠언 5:18, 18:22, 19:14)
3. 결혼을 하면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떠나 사랑하고 서로 순종할 수 있는 특별한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성품을 기를 수 있습니다.(에베소서 5:22-30)
4. 결혼을 하면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성적 욕구를 억제해야 하는 어려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고린도전서 7:1-9)

### ✧ 독신이 좋다

1. 어떤 사람들에게는 독신이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

는 은사가 됩니다. (마태복음 19:12)

2. 어떤 사람들에게는 결혼은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고린도전서 7:8)

3.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온전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32-34)

4. 혼자 살게 되면 부부와 부모 역할을 할 때에 피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물질적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고린도전서 7:28-35)

## □해설

창세기 2장 18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시고 아담에게 아내를 주었습니다. 잠언의 기자도 18장 22절에서 좋은 아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여 결혼의 좋은 점을 확신했습니다.

다른 한편 사도 바울은 혼자 사는 사람에게 계속 그대로 지낼 것을 적극 권장했는데 그 이유는 혼자 살게 되면 홀트러지지 않고 주님에게만 전적으로 집중하여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7:32, 33)

## □결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결혼의 필요성도 만드셨으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을 하는 경우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역시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받아 결혼을 통

해 얻을 수 있는 성적·정서적 만족이 없어도 얼마든지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독신으로 지내면서 아무 일에도 구애받지 않고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 □적 용

- 혼자 지내는 것이 주님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은 혼자 살 수 있는 은사를 받았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그냥 그대로 지내는 것을 진심으로 고려해 보십시오.
- 마땅한 배우자를 만나지 못해 아직 독신으로 지내는 사람은 혼자 살 수 있는 은사를 받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주님께서 배우자를 보내주시거나 그냥 독신으로 지낼 수 있도록 마음을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 결혼을 원하여서 배우자를 찾은 사람은 신중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제를 하되 “주 안에서만”(고린도전서 7:39) 결혼을 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 결혼을 하면 성적 욕구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결혼을 통하여 가족이 늘어나게 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랑을 표시하며, 삶이 풍성해집니다.

- 혼자 살면 영적 생활에 도움이 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결혼을 할 때에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장로가 되려면 결혼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하였고(디모데전서 3:2), 결혼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묘사하였습니다.(에베소서 5:22-33)

## 6

### 부부의 섬김

#### 아내가 남편을 섬겨야/남편이 아내를 섬겨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에베소서 5:22)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에베소서 5:25)

M씨 부부는 크리스천인데 35년의 결혼 생활 끝에 별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가장인 자기의 말을 고분고분 듣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지쳐버렸다고 말합니다. 아내는 자신이 아이 취급을 당하고 사는 것도 이제는 그만하면 됐다고 말합니다. 남편은

성경 말씀에 남자가 집안의 머리라고 했으므로 성경은 자기 편이라고 합니다. 아내는 성경에 보면 여자가 항상 인격을 무시당해야 한다고 한 구절은 아무 데도 없으며 오히려 남자에게 여자를 사랑하고 보살피라고 했다고 하면서 반론을 펴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을 정당화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상대에 잘못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 ☒ 아내가 남편을 섬겨야 한다

1.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5:22-24)

2. 남편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아내는 더욱 그리스도를 닮은 품행을 보임으로써 남편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소망으로 남편을 섬겨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1-4)

3. 아내들은 남편을 경외하라고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5:33, 베드로전서 3:5, 6)

4. 아내는 남편에게 몸을 맡기어 남편이 만족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7:4)

## ☒ 남편이 아내를 섬겨야 한다

1.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남편들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순복하고 섬기는 태도를 보여야 하며 특히 아내들에게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18, 21, 25)
2. 남편들은 아내를 돌보고 보호하기를 제 몸같이 하라고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5:28, 29)
3. 남자는 부모를 떠나면 아내를 첫번째로 귀중한 사람으로 여겨야 합니다. (에베소서 5:31)
4. 남편도 아내에게 몸을 맡기어 아내가 만족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7:3)
5. 남편은 여성이 가진 신체적·심리적 특성을 잘 이해하여 온유함과 섬세함으로 아내를 대하여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7)

### □해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같이 가정의 머리가 되는 남편은 집안을 이끌어 가는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남편들도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 놓여 있으므로 그들의 주인인 주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남자들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에베소서 5:21)고 하신 말씀을 삶의 원칙으로 삼



아야 합니다. 더우기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심같이 하라고 하신 명령대로만 행한다면 이는 예수님께서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며 보이신 그 마음으로 아내를 섬기는 것이 됩니다. (요한복음 13)

## □결 론

남편과 아내는 둘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서로를 섬기는 고유한 역할을 다 하여야 하는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 □적 용

- 남편과 아내는 부부로서 상호의 관계에서 서로 순종의 위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의식적으로 성령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는 성령께서 우리로 서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해 주심을 확신해도 좋습니다.
- 결혼한 남녀의 삶에 이와 같은 풍성한 삶의 축복이 넘쳐 흐를 때 여자는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남자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와 같이 하는 집안의 머리로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섬기는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 가족, 얼마나 사랑해야 하나?

### 가족을 사랑해야 한다/미워해야 한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 : 12)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  
모와 처자 … 까지 미워하지 아  
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누가복음 14 : 26)

어느 30세 된 선교사 한 사람이 남미에서 미개 종족을 위해서 7년 동안 선교 활동을 하다가 휴가차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지금과 같은 생활 조건에서 가정을 갖게 되면 선교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독신으로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님은 아들이 혼자 지내는 것을 별로 탐탁치 않게 여겼습니다. 부모님이 이 아들을 대학교에 보내고 신학을 공부시킬 때는

나중에 목사가 되어 아내를 얻고 손자들도 보게 되는 것을 생각했었습니다. 더우기 이 사람은 외아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주장하여 선교 지역으로 떠나서 결혼도 하지 않고 지내는 것을 보면서 부모님은 크게 상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비록 가족들이 상심하거나 실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인의 결의를 끝까지 지키고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 가족을 사랑해야 한다

1.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0 : 12)
2. 부모는 자식을 가르치고 사랑해야 하며, 자식에게 악한 일이 생길 때에 부모가 슬퍼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런 일입니다. (신명기 6 : 1-9, 사무엘하 18 : 33, 디도서 2 : 4)
3.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과 자식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친척들을 보살펴야 합니다. (에베소서 5 : 23, 디모데전서 5 : 8, 디도서 2 : 4)
4. 자녀들은 부모와 형제를 사랑하고, 그들이 불행을 당할 때 함께 아픔을 나누며, 그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슬퍼해야 합니다. (창세기 49 : 28-50 : 3, 요한복음

## □해 설

가족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보살펴야 하는 것은 기독교 교육에서 절대적인 기본 사항입니다. 그러나 가족에 대한 사랑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우리의 본분을 저버려서는 안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족까지도 미워할 수 있어야 한다고(누가복음 14:26)하신 것은 가족에 대하여 악의나 증오심, 적개심을 가져야 한다거나 심지어 가혹하게 대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누가복음의 말씀과 창세기 29장 31절, 말라기 1장 3절, 로마서 9장 3절에 나오는 “미워한다”라는 단어는 “덜 사랑한다”는 뜻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는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아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고 하신 말씀에서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가족을 위해야 할까 하나님을 위해야 할까를 놓고 선택을 해야만 할 때가 생깁니다. 이런 때에 우리와 주님 사이에 걸림돌이 되는 어떤 일이나 사람을 상대적인 개념으로 ‘미워’하거나 싫어해야 할 필요가 생길 것입니다.

## □결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가족을 사랑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희생시키면서 해서는 안됩니다. 누구를 먼저 섬겨야 하는가라는 문제로 갈등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먼저 선택해야 할 것이며 다른 것은 상대적으로 '미워'해야 합니다.

## □적용

- 우리는 가족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아낌없이 주어야 합니다.
-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는 것을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의 소원보다 앞세울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 가족들 가운데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떼어 놓으려는 사람이 있으면 이에 맞서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식이 임종을 앞둔 부모를 돌보아야 하는 책임을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였으나 예수님은 자신에게 충성하는 것이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하는 것보다 먼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21,22)

## 다정한 부모와 엄격한 부모

### 부모는 다정해야/부모는 엄격해야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이사야 66 : 13)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시편 103 : 13)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잠언 23 : 13-14)

A라고 하는 국민학교 교사가 있었는데 그는 온유한 성격으로 아이들에게 다정하게 대하는 아버지입니다. 그가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긴 하지만

그가 가르치는 교실 학생들의 수업 태도는 매우 엉망이고 그의 두 아들도 학교 생활이 별로 좋지 못합니다. 자세히 말해서 두 아들은 너무 말을 듣지 않아서 동네 사람들도 이 아이들의 버릇 없는 행동을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으며 친척들마저도 이 아이들이 오는 것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A 선생님의 경우에는 다정한 부모가 되는 것이 가정을 위해서 별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작은 공장을 경영하는 K 사장님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엄격하게 이끌어 갑니다. 아이 셋 가운데 둘은 10대인데 아이들은 모두 집안에서는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정반대이며 자기네 아버지를 나쁘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싫어하여 아버지가 없을 때에는 악한 말까지도 합니다. K 사장님의 경우에는 엄격한 아버지가 되는 것이 가정을 위해 별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 ✧ 부모는 다정해야

1. 자식을 위로하는 어머니는 하나님과 그의 자녀와의 관계를 보여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사야 66 : 13)
2.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대하시는 모습은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하였습니다. (시편 103 : 13)

3. 부모는 자식의 물음에 대답을 해 주고 영적인 진리에 대하여 자세히 가르쳐 주는 등 자식에게 자상함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12 : 26,27 ; 13 : 8 ; 신명기 6 : 6,7 ; 에베소서 6 : 4)

4. 부모는 자식의 장래에 대하여 자상하게 관심을 보여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 : 14)

### ✧ 부모는 엄격해야

1. 체벌을 가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표시이며 훈계의 한 방법입니다. (잠언 13 : 24 ; 22 : 15 ; 23 : 13,14 ; 29 : 15)

2.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과 그 가족들을 심판하셨는데 그 이유는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들의 사악한 행위에 도 불구하고 이들을 가르치고 징책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 : 22-36 ; 3 : 11-14)

3. 다윗 왕이 그의 아들 아도니아를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것이 이 젊은이로 하여금 솔로몬의 왕위를 빼앗고 자 하는 무모하고 악하고 파괴적인 일을 저지르게 만든 원인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 : 6)

4. 부모가 자식을 훈계하고 보살피는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자식에게 심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신명기 6 : 20-25 ; 잠언 9 : 10)



## □해 설

시편 기자와 이사야 선지자는 둘 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위로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의 자상한 마음에 비유하면서 부모가 다정다감해야만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시편 103:13, 이사야 66:13)

동정을 베푸는 것, 온유한 것, 자비로운 것, 오래 참는 것 등은 모두 성경이 가르치는 미덕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식이 잘 되는 방향으로 애정을 가지고 보살피는 가운데 자식에게 영향을 끼치는 수완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러나 잠언의 기자는 자식의 훈육은 엄격해야만 한다고 부모들에게 권면합니다. 23장 14절에서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이라고 한 말씀은 적절한 물체를 가지고 체벌을 하라는 뜻이지 몽둥이로 무자비하게 매질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 □결 론

자식을 다정하게 대하는 것과 엄격히 다루는 것은 병행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표현하고 참을성을 가지고 가르치며 온유하게 훈계하는 것이 엄격한 규율과 엄중한 경고, 매를 드는 것과 잘 조화가 되어야 합니다.

## □ 적 용

- 부모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의 복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부모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기준을 제시하며, 사랑으로 강권해야 합니다.
- 부모는 자식을 가르침에 있어서는 참을성을 가져야 하고, 대하는 태도에서는 존경심을 보여야 하며, 훈계에 있어서는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 부모 자신도 어떤 잘못을 하였을 때에는 스스로를 낮추어 사과를 하고 실수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자식, 축복인가 저주인가?

### 자식은 축복이다/저주이다

“자식은 여호와와 주신 기업이요 ...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시 127 : 3,5)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잠언 10 : 1)  
 “미련한 자의 아버지는 낙이 없느니라”(잠언 17 : 21)

L씨 부부는 갓 태어난 아들을 안고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선물이라고 여기며 기쁨과 경이로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더욱이 이 아이는 오랫동안 기다려오던 끝에 얻었기 때문에 그들의 결혼 생활도 완전히 새로워질 것이고 부부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을 의심치 않았습

니다.

16년이 지난 어느날 이들 부부의 말은 이렇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지만 또한 가장 큰 실망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L씨 부부는 아들이 부모의 모든 권위에 반발하고 약물과 알콜까지 상습적으로 복용하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타임지에 의하면 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아이를 다시 한번 키우라고 한다면 차라리 낳지 않겠다고 대답한 사람이 70퍼센트였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과연 자식은 축복인가요, 저주인가요. 아니면 양면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 ☒ 자식은 축복이다

1. 자녀의 출생은 하나님 은총의 표시입니다. (창세기 4:2; 21:1-6; 사무엘상 1:8-20)
2. 많은 자녀를 얻은 가정은 기쁨이요 축복입니다. (욥기 29:5; 시편 115:14; 127:3; 144:12)
3. 부모에게 자식은 기쁨의 원천입니다. (시편 113:39, 127:4, 5 잠언 23:24, 25)
4. 착한 자식은 부모의 삶을 풍요하게 해 줍니다. (잠언 3:12; 10:1; 15:20; 23:15, 16; 27:11; 29:17)

5. 자식이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아버지는 교회에서 지도자가 될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4,12)

## ✧ 자식은 저주이다

1. 자식이 부모에게 슬픔과 고통,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잠언 10:1; 17:25)

2.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을 해치려는 악한 행위를 함으로써 그 아버지에게 커다란 슬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창세기 37:34-36; 42:36-38)

3.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의 악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2:12,22-25, 29-34; 3:11-14)

4.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악한 아들들이 다스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왕을 세워 달라고 사무엘에게 간청하였습니다. (사무엘상 8:1-5)

5. 다윗은 두 아들 암논과 압살롬의 패륜과 배신으로 인해 심한 슬픔을 당했습니다. (사무엘하 13-18)

## □ 해 설

시편 127편 3절과 5절을 보면 자식을 화살과 같다고 비교하면서 대식구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축복

이라고 하였습니다. 화살은 적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방어적으로 쓰일 수도 있고 진리의 목적을 위하여 공격적인 무기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 기자는 동전의 다른 쪽 면을 보여 주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녀는 슬픔과 고통을 가져다 준다고 하였습니다. (10 : 1 ; 17 : 21)

### □결 론

하나님을 아는 자녀는 부모와 가족에게 축복이 되나, 불순종하며 세상의 일과 육신의 일과 악한 길을 택하는 자녀는 저주가 됩니다.

### □적 용

- 대다수의 사람들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들은 부모가 된다는 것이 하나의 천직이요 특전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 부모가 생활 속에서 믿음을 보여 주며 꾸준하게 믿음의 원칙들을 가르치면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까지 장성해야 하는 이유와 동기들에게도 복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자기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신앙의 전통을 끝내 거부하고 죄 가운데 죽는 자식은 정말로 부모에게 큰 저주가 됩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전적으로 자식 본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 그러한 저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에게 더욱 더 가까이 나아가게만 된다면 그것은 하나의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 부모의 죄와 자식의 고통

### 부모의 죄로 자식은 고통 받는다/아니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출애굽기 20 : 5)

“아들은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에스겔 18 : 20)

장애인 연금으로 살고 있는 S씨는 건강이 나빠서 일을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심한 음주벽이 있어서 법을 위반하는 말썽을 일으켜 왔으며, 그의 학대에 견디다 못한 아내와 아이들은 집을 떠났습니다. S씨는 자기



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였으며 심한 음주벽으로 자식을 학대하다가 그가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 집을 나간 자신의 아버지에게 탕을 들렸습니다. S씨가 자기의 지난 날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누구나 동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S씨의 형인 J씨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훌륭한 직장도 가지고 있고 단란한 결혼 생활을 하며 아이들은 말을 잘 듣고 친구들과 직장 동료 사이에 칭찬이 자자합니다. J씨의 가정은 그가 자라난 가정과는 비슷한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J씨의 생각에는 그의 동생 S씨가 겪는 고생은 모두 자기의 탓이지 아버지의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누가 옳을까요? 부모의 죄는 자식의 고통으로 이어지는 것일까?

## □해 설

성경은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이 어떠한 형태로든 고통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는데(출애굽기 20:5), 또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도 합니다(에스겔 18:20).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자식이 반드시 고통당하리라고 경고한 것은 우리 주변에서 늘 보는 일입니다.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제멋대로 사는 부모의 예를 들어 보면 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십

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모 자신들도 그들의 부모로부터 이런 삶을 배웠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아이들은 부모의 사는 방식과 고통을 물려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아이들은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위치에까지 성장하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에스겔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부모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에 큰 불만을 가졌습니다(에스겔 18:1,2). 에스겔은 이러한 주장을 그만두라고 명하였을 뿐 아니라(3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4절)라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악한 아버지의 선한 아들에게 상을 주시며 선한 아버지의 악한 아들에게 벌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 □ 결 론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이 여러 가지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 □ 적용

- 우리는 어렸을 때 받은 무관심과 학대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보살펴야 합니다.
- 나쁜 행동을 하고도 언제까지나 부모의 탓으로 돌

리는 것은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단호하게 자기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 불우한 어린 시절이나 나쁜 유전 인자 때문에 고생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치유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 하나의 문제를 다 이해하시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자녀로 받아 주시며, 변화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 호도, 분가 후에는?

### 계속되어야 한다/아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창세기 2:24)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마가복음 7:12-13)

M이라고 하는 여자는 친절하고 남을 돕는 것을 좋아하는 여성으로 자기의 친정 부모님에게 늘 잘 해드려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이제 운전할 수 없지만 되도록이면 오랫동안 지금까지 살던 집에서 계속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M여사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부모님과 함께 지내며 어머니를 도와 일주일에 한 번씩 빨래를 해 드리고 부모님이 장을 보러 가거나 병원에 가야 할 때마다 택시를 태워드리고 있습니다. M여사는 10대의 두 아이들까지 동원하여 그녀의 부모님을 보살피게 합니다.

그의 남편 K씨는 이것이 매우 못마땅합니다. K씨의 부모님은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건강도 좋습니다. 그는 아내와 아이들이 장인 내외를 보살피느라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어른들이 집을 팔아서 남은 돈으로 노인 아파트에 들어가 살면 가족들이 매일같이 도와야 할 일이 적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아내가 결혼했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떨어져 나왔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K씨는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들어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 M여사의 주장은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라고 한 것은 평생토록 실천해야 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바리새인들이 가진 돈을 모두 성전에 바치고 도움이 필요한 부모님을 돌보아야 할 의무를 저버린 것을 예수님이 질책한 것은 우리 모두가 도움을 기다리는 부모님을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 □ 해 설

창세기 2장 24절은 “헤어짐과 연합함”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결혼을 하는 사람은 부모의 집을 떠나 배우자와 “접착제로 접착된 것처럼” 한 몸을 이루어 새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7장 9-13절에서는 다른 원칙, 즉 부모에 대한 지속적인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이 전통을 핑계로 삼아 도와야 할 부모를 회피하는 것을 보시고 꾸짖으시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보살피는 것은 평생토록 해야 할 의무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부모를 떠나라고 명령하고 있지만 성경은 또한 부모님을 끝까지 보살피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 □ 결 론

사람이 결혼을 하면 새로운 가정의 단위를 이루는데 이것은 그밖의 모든 인간 관계보다 우선이 되는 단위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에는 사랑으로 보살피드림으로써 변함없이 공경해드려야 합니다.

## □ 적 용

- 남편과 아내의 사이를 부모와 자식의 사이보다 더 가까운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 결혼한 사람은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배우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 사람이 결혼을 통하여 “한 몸”으로 연합될 때 비로소 배우자의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진정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 부모에게 순종하라(에베소서 6:1)고 하신 명령은 결혼을 하면서 끝나게 되나 부모를 공경하여야 하는 의무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이 혼자 살 수 없게 되었을 때 계속하여 문안드리고 존경해드리고 보살펴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 부양의 의무

### 부모가 자식을 돌보아야/자식이 부모를 돌보아드려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고린도후서 12:14)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디모데전서 5:4)

자동차 뒤쪽에 붙이고 다니는 스티커에 “자식에 물려줄 유산 우리가 소비하고 있다”라는 말을 보았는데 이것은 많은 부모들이 고개를 끄덕일 만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동안에 아무리 큰 고생을 하였어도 다 크고 나면 아이들은 감사를 모르고 자



기만 압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더 무엇을 남겨 주어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C 선생 부부는 자식이 셋 있는데 모두 결혼하여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살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마음 한 구석에 부모를 도와 드려야 한다는 의무감은 있으나 마음에 내키지는 않습니다. 70세가 넘는 C 선생 부부는 거동이 불편합니다. 이들은 하루에 3시간씩 파출부를 불러서 음식 만드는 일과 몸을 간병하는 일과 집안 정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만으로는 이 비용을 댈 수가 없습니다. 퇴직 연금도 매우 작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그 동안 저금하였던 얼마 안되는 돈을 꺼내 쓰고 있습니다. 이제 집을 저당잡혀 돈을 빌려 써야 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자식들은 부모를 돕는 것을 그들의 의무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식들 말을 들어보면 부모님은 생활하시기에 필요한 것을 다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정부에서 할 일이라고 합니다.

위의 두 가지 경우 모두가 문제가 되는 것은 부모들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에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재물을 저축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자녀들에게는 부모를 돌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누가 누구를 돌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 □ 해 설

고린도후서 12장 14절을 보면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인 부모 역할을 하였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서 무엇을 받는 것보다는 베풀어 주고 싶어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해야만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원칙대로 자식이 부모의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위해 짐을 져야 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바울은 부모의 짐에 대하여 말할 때 다만 아이가 어렸을 적에 돌보는 것만을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재물을 저축한다”라고 번역된 헬라 원어인 thesaurizo 라는 말은 쌓다, 모으다, 저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래의 필요를 생각해서 쌓아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손들이 필요한 물질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준비해 두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3-16절에서 교회 안의 가난한 과부들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누구보다도 이들의 자식과 손자들이 먼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식이 없는 과부들에 한해서 교회가 도와주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모가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분명히 자식은 평생 동안이라도 돌보아드릴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결 론

부모는 부지런히 일하며 계획성을 가지고 자식들이 먼 장래에 필요한 것까지도 대줄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자식도 부모들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든지 살 수 없게 됐을 때에는 부모님을 도울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적 용

- 크리스천 부모들은 부지런히 일하고 절약하여 자녀들에게 재정적 안정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그러나 크리스천 부모들은 이 경우에도 두 가지 다른 의무 사항과 균형을 잘 맞추어야 합니다. 즉 남을 구제하는데 인색하지 않을 것과 내일 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마음을 간직해야 합니다.
- 크리스천 자녀들도 부지런히 일하고 절약하여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가 없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세대가 바뀌어 자식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 도움을 받기보다는 베풀 수 있는 부모가 될 것입니다.

## 한국 오늘의 양식사

### ■ 구독 신청과 독자 주소 · 전화변경 받는곳

전 화 : (0342) 780-9565~7

F A X : (0342) 780-9569

E-mail : odbkor@hitel.net

인터넷 : <http://www.hallelujah.or.kr>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32 우편번호 : 463-070

### ■ 선교헌금 안내

오늘의 양식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기 위하여 권당 450원의 제작비를 도울 선교헌금을 보내 주십시오. 문서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계좌번호 · 예금주 : 「할렐루아선교원」

한빛 : 122-143075-01-101

한빛 : 132-05-108980

국민 : 097-01-0199-703

서울 : 16301-1886909

외환 : 026-13-33750-7

제일 : 107-10-109840

농협 : 001-01-214911

조흥 : 308-01-137748

우체국 : 012773-0026681

### ■ 섬기는 분들

발행인/김상복 편집장/김승호 고문/최태의 위원장/김경현

봉사위원대표 : 총무/차일환 기획/정호균 회계/최석주 관리/이종규

출판/이덕진 발송/임길택 홍보/김대환 상담/김영자

제작/소망사 : 733-4242 · 팩스 : 733-4243

신앙 성장 시리즈 5

**큰형있는 가정생활**

인 쇄 / 1999. 10. 25

발 행 / 1999. 10. 30

발행처 / 한국 오늘의 양식사

전 화 : (0342)780-9565~7

① 절망에서 희망으로

우리가 좌절감, 고통, 슬픔에 잠길 때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

② 교회는 누구에게 필요한가?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즐거운 신앙생활 안내

③ 오 신실하신 하나님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죄 용서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

④ 복있는 사람

진정한 행복이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참 행복의 설계

⑤ 균형있는 가정생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한 곳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있는 가정생활

⑥ 왜 살아야 하나?

삶의 의미와 진정한 만족은 어디에? 하루하루를 뜻있게 사는 길

⑦ 행복한 결혼생활

성경에서 말씀하신 성공적 결혼의 10가지 요소

⑧ 남자다운 남자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남자! 그 모습대로 완성되어 가는 길

⑨ 여자다운 여자

하나님이 바라시는 여자의 모습!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인의 삶

⑩ 걱정없이 살고 싶다

왜 걱정합니까? 걱정없는 삶의 성경적 해답

⑪ 다시 찾는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서  
첫사랑의 감격과 활력을 회복하는 길

⑫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성경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다섯 가지 기본원리

## 신앙 성장 시리즈 5

### 『균형있는 가정생활』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있는 신앙과 생활입니다. 이 소책자는 우리의 가정생활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고 있는 상반된 것 같은 가르침으로부터 오히려 균형있는 가정생활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 자식의 장래는 누가 결정하는가?
- 결혼한 여성의 맞벌이
- 하나님은 이혼과 재혼을 허락하시는가?
- 영적 생활을 위해 결혼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독신이어야 하나?
- 부부의 섬김, 아내가 남편을 혹은 남편이 아내를?
- 가족, 얼마나 사랑해야 하나?
- 다정한 부모와 엄격한 부모, 어느 편이 좋은가?
- 자식, 축복인가 저주인가?
- 부모가 지은 죄와 자식
- 효도, 결혼 후에는?
-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의 관계



**Radio Bible Class**

이 책자는 미국의 R.B.C(Radio Bible Class)에서 발행한 "Does the Bible Contradict Itself About the Family?"를 『한국 오늘의 양식사』에서 그리스도인의 신앙 성장을 위하여 번역 출판한 것입니다.